

“도서관장서를 집안에서 받아본다”

장애인 독자 위해 ‘宅配서비스’ 실시하는 서울 ‘새날도서관’



채종길 씨.

소규모 사설도서관이 지역민들의 호응속에 조용하게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제38회 독서주간’에 즈음해 장애인들을 위한 무료도서관이 또하나 문을 열어 독서의 계절인 가을의 문턱에서 잔잔한 화제가 되고 있다. 평소 책을 가까이 하고 싶어도 여러가지 사정으로 인해 원활한 독서가 어려웠던 전국 400만 장애인들에게는 더할 수 없이 반가운 소식이 되고 있다. 특히 전체 장애인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혼자 거동이 불편한 ‘在家 장애인’들을 주요대상으로 필요한 책을 집으로 직접 배달해주는(택배) 대출방식을 취하고 있는 점은 이 도서관의 설립의의와 더불어 자못 관심을 끄는 부분이다.

“장애의 정도가 심해 집안에서 생활하는 재가장애인은 지식의 충족은 물론 사소한 정보로부터도 철저히 소외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장애인이라고 해서 지식과 정보에 대한 욕구가 정상인들과 틀리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집안에만 있으니까 그러한 정보에 대한 욕구는 상대적으로 더 큰 편이지요. 이 무료도서관은 이같이 재가장애인들의 절박한 문제를 해결해 줄 목적에서 설립되었습니다.” 한국장애인복지정책연구원 채종길 회장(32, 한의사, 지체장애 3급)은 모든 정보로부터 소외된 재가장애인들이 책을 통해서 자신과 사회를 인식하고 당당한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살아갈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도서관을 열게 되었다고 설명한다.

장애인복지정책연구회에서 9월초 문열어

“장애인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복지정책이 미비한 현실에서 이의 원인을 밝히고 과학적

“장애의 정도가 심해 집안에서 생활하는 在家 장애인들은 지식의 충족은 물론 사소한 정보로부터도 철저히 소외돼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장애인이라 해서 지식과 정보에 대한 욕구가 정상인과 틀리지는 않습니다. 이 도서관은 이같이 재가장애인들의 절박한 문제를 해결해줄 목적에서 설립되었습니다.”

연구를 통해 정책개발 및 대안을 제시하는 한편 장애인 운동에 대한 방향제시와 이론정립을 목적으로 원광대 출신 20여명이 중심이 되어 지난 1월 창립된 한국장애인복지정책연구회가 장애인들을 위한 사업의 하나로 문을 연 ‘새날도서관’이란 이름의 이 무료도서관의 규모는 이제 출발단계인 만큼 아직 그리 큰 편이 아니다. 그러나 지난 9월 5일 개원하여 1개월 남짓 지난 현재 이용률은 애초의 기대 이상으로 활발한 편. 장애인복지신문을 비롯한 방송 및 일간지의 적극적인 홍보에 힘입은 덕에 하루평균 10~15건의 대역신청이나 이용방법을 묻는 문의전화도 쇄도하고 있다고 한다. 그래서 벌써 가입회원수만도 400여명을 훨씬 넘어섰다. 7, 8월 2개월여의 준비기간 동안 동년, 한겨레, 청년사, 일월서각, 창작과비평사, 온누리, 실천문학사, 들꽃세상, 태극출판사, 사계절, 정신세계사, 고려원, 정음사, 청계연구소, 마당, 행림출판사 등 50여개 출판사들의 도움을 받았고, 여러 독지가와 후원 단체들의 기증분을 받아 현재 보유 장서의 수는 5000여권에 이른다.

이 도서관의 책대출 방법은 여느 다른 도서관의 대출형태와는 달리 장애인의 특성에 맞게 매우 독특하다. 즉,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들의 특수한 사정을 감안, 집으로 배달해주고 우편으로 반송을 받는 방법이 그것. 회원으로 가입하면 장애인들의 경우 전국 어디에서나 전화나 우편으로 도서신청을 할 수 있다. 서울 경인지역의 장애인들은 새날도서관의 자원봉사자들이 직접 방문하여 전달해 주는데, 이를 위해 학생과 주부들로 구성된 20여명의 자원봉사자들과 4명의 실무간사가 봉사하고 있다. 새날도서관은 장애인들을 위해 만들어진 것이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장애인들의 전유물만은 아니



새날도서관 내부. 대개가 외부대출이므로 봉사자들이 책을 찾기 쉽도록 서고처럼 꾸며냈다.

다. 지역주민(장복연 사무실이 위치한 성동구민)에게도 문을 개방, 자유롭게 책을 빌려볼 수 있게끔 하고 있는데, 장애인들에 대해 편견을 가질 수 있는 일반인들에게 장애인들 역시 정상인들과 하등 다를 바 없음을 이웃의 주민들에게 인식시키고, 나아가 장애인 문제에 함께 관심을 가져주었으면 해서이다.

새날도서관의 앞으로의 계획은 딱 다채롭다. 장애에도 ‘유형’과 ‘경중’이 다르기 때문에 정보(책)의 공급에도 세심한 배려가 요구된다. 예를들어 시각장애인들을 위해 책의 내용을 녹음해 들려주는 작업이라든가, 항상 대화상대가 아쉬운 그들과 마주앉아 책도 읽어주고 이야기도 함께 나누는 방법 등도 그런 배려의 하나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원봉사자의 수나 자원의 도움이 더 있어야 함은 물론이다. 장애인들은 사회의 냉대에 비례하듯 소외와 고통을 함께 겪는 동류의 사람들끼리 응집력이 대단한 편이다. 그래서 도서관 미래는 ‘밝다’고 전망한다. 오히려 봉사자의 일손이 달려 책의 공급이 원활하지 못하거나 읽을만한 책이 없어 이용자들의 욕구를 제대로 수용하지 못할까봐 걱정하고 있는 형편. 도서대여실이 체계를 잡게 되면 ‘독서토론 소모임’이나, 회원들의 독후감 글을 나누는 회보의 발송 등 사업도 다양하게 퍼나갈 생각이다.

이용자의 실정에 맞는 대출방식으로 “인기”

“사회의 좀더 따뜻한 관심이 필요합니다. 그나마 이뤄지고 있는 장애인에 관한 정책도 수용시설물을 늘리는 외형에 치중되어 있을 뿐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는 교육 프로그램은 전무한 실정이지요. 따라서 장애인 수용시설을 하나 더 늘리는 것보다 장애인들이

지식을 쌓아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고 대처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데로 복지정책이 개발돼야 한다”고 말하는 채회장은 국가정책이나 사회로부터 소외되어 있는 장애인들을 위해 하는 일이니만큼 출판사나 뜻있는 사람들이 조금씩 도와주었으면 하는 바람을 내보였다. 특히 신간서적과 장애인들에게 책을 전달해줄 자원봉사자, 그리고 책을 우송하는데 소요되는 우표 등의 비용이 가장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서울 성동구 용답동 102-6. 216-0683, 242-6197.

— 정혜옥 기자

문화부 추천도서 신청접수

“제25회 문화부 추천도서” 선정을 위한 대상 도서 신청을 다음과 같이 접수합니다.

1. 대상 도서
 - 1991년 9월 1일부터 1992년 8월 31일까지 발행한 국내 신간도서
 - 교과서, 학습참고서 및 정기간행물 제외.
2. 신청 절차
 - 가. 신청기간 : 1992년 10월 2일~10월 31일 (25일간, 공휴일 제외)
 - 나. 신청서류
 - 신청서(소정양식)
 - 신청도서 2부
 - 도서내용 개요(200자 원고지 3매이내)
 - 다. 신청서교부 및 접수
 - 신청서 교부
 - 문화부 도서출판과(720-4905)
 - 대한출판문화협회(735-2701~3)
 - 접수처 : 대한출판문화협회
3. 선정결과 발표
 - 1992년 12월 7일(월)예정